

2007년 해외시장 이런 아이템 주목하라

친환경·웰빙·IT 퓨전 제품 뜬다

올해도 세계 주요시장에서 친환경·웰빙 제품의 히트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보기술(IT) 및 통합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기인한 다기능 '퓨전 제품'의 출시로 핸드폰, 디지털 카메라, 컴퓨터 주변기기 등 분야에서 시장 확보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코트라(KOTRA)는 최근 발간한 '2007 미러보기'를 통해 20대 주요 해외수출시장을 대상으로 히트가 예상되는 아이템을 소개하고 그 요인을 분석했다고 5일 밝혔다.

세계 20개국산 140여개 히트 예상 품목 중 한국의 수출품은 20여개가 추천됐으며 특히 한국은 LCD TV·모니터 부문에서 올해도 월등한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은 최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디지털 카메라 등에서 경쟁우위를 보이며 36개 품목이 히트 예상상품으로 선정됐다.

코트라 보고서 해외시장 분석

LCD TV·모니터 부문 올해도 강세

자동차·디카 등 36개 품목 히트 예상

중국, 말레이시아 등 신흥 성장국들의 제품 증가율을 기록했다. 컴퓨터 관련 기기분야에서 저렴한 가격 대비 품질향상을 바탕으로 한국 제품의 시장이 급속하게 잠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제품별로 보면 자동차는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산 자동차들이 고유가·친환경시대에 대비하는 고효율 엔진과 우수한 성능으로 주요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꾀하는 가운데, 중국산은 월등한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에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됐

다. 디지털카메라부에서는 캐논, 소니, 파나소닉, 니콘 등 고성능 일본제품의 우위가 전망되는 가운데, LCD 등 플래트널 TV·모니터에서는 삼성, LG 등 한국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휴대폰시장은 비즈니스맨을 위한 인터넷 접속이나 e-메일 송수신 기능 및 각종 사무 네트워크 기능이 강화된 PDA·스마트폰 제품시장과 여성

고객을 주 대상으로 휴대성 및 디자인에 비중을 둔 슬림형 카메라폰 시장으로 양분화 되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휴대폰은 노키아, 모토로라가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를 기반으로 다소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삼성, LG, 소니에릭슨의 경쟁이 전망됐다.

MP3는 작년 이어 미국 애플사의 독주가 예상됐다. 이 밖에 동남아 화장품 시장에서는 일본 제품들이, 사무용품의 핵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USB나 노트북, DVD 플레이어 분야는 주도적인 모델 없이 일본, 미국, 한국, 대만, 중국 제품이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색·신규 히트상품으로는 절전기능을 내재한 한국산 온돌 난방, 천식 및 알레르기 방지용 진공 청소기, 맥박 측정 등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내재된 손목시계, 안경에 장착된 이어폰 등이 소개됐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예식장 '쌍춘년 특수'

4년만에 불황 탈출...학원도 매출 증가

2006년 서비스업동향

지난해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예식장의 매출이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쌍춘년 특수'를 토포하며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동안 부진했던 학원 매출도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여관과 술집도 매출이 소폭 늘어나면서 불황 탈출의 가능성을 보였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서비스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예식장업의 매출은 지난 2005년보다 14.8% 늘었다.

이는 지난 2002년(21.6%) 이후 4년 만에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쌍춘년 효과'로 인한 업계의 호황을 반영하고 있다. 예식장업 매출은 ▲2003년 -4.4% ▲2004년 -0.4% ▲2005년 -5.6% 등으로 3년 연속 감소했으나 지난해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오랜 침체에서 벗어났다.

결혼 증가로 이용·미용업의 매출도 전년보다 4.0% 늘었다. 또 육탕·마사지 및 미용관련 서비스업의 매출은 전년보다 0.5%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2002년 이후 4년 만에 감소세에서 탈출했다.

학원업의 매출은 전년보다 5.5% 늘어나면서 2003년(5.5%) 이후 최고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학원업은 한동안 경기 침체와 교육방송(EBS)의 수능방송 등의 영향으로 부진했지만 지난해 재수생과 입시학원이 늘어나면서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유아교육기관의 매출은 1.7% 늘어나 2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고,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는 각각 2.0%, 1.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음식·숙박업종의 경우 주점업과 여관업의 '반전'이 눈길을 끌었다. 주점업과 여관업의 매출은 전년보다 각각 0.6%, 0.4% 늘어나면서 4년 만에 감소세에서 벗어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였다. 또 한정식 등 일반음식점의 매출은 같은 기간 2.9% 늘었고, 분식·햄버거·치킨·피자 등 기타음식점의 매출도 1.4% 늘어나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오락장운영업의 매출은 전년보다 2.3% 줄어 지난 2004년(-13.9%) 이후 첫 감소세를 보였다. 경마·경주장운영도 전년보다 5.6% 줄어들면서 ▲2003년 -15.1% ▲2004년 -19.6% ▲2005년 -5.0% 등에 이어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토지보상금 수령자 가족도

부동산 거래내역 정기조사

건교부, 업무계획

토지보상금 관리를 위해 보상금 수령자는 물론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해 정기조사가 이뤄진다.

토지보상금의 채권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직인이 채권보상을 신청할 경우 대토(代土)보상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이 7월 착공되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9월부터 순차적으로 공사에 들어간다.

건설교통부는 5일 서민의 주거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2007년 건설교통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올해 핵심과제로 ▲선진 주거복지 구현과 집값 안정 ▲균형 국토 실현 ▲동북아 물류를 선도하는 교통·물류간극 건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기반 구축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건설산업 선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등 7개를 정했다.

건교부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돼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상금 수령자뿐 아

니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지금은 수령자에 대해서만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해왔으나 그 가족으로까지 범위를 넓히고 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편법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시장 특별감시구역'으로 지정돼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이상징후가 발견될 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부재지주에 한해 1억원초과 부분에 대해서 채권보상이 의무화돼 있지만 현직인중에서도 채권보상을 희망할 경우 대토보상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대토보상은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현금이나 '개발 이후의 땅'으로 해주는 제도로 현재 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2015년 오송-광주, 2017년 광주-목표간 개통을 목표로 하는 호남고속철도는 올해 기본 설계를 본격 추진하며 경부고속철도 2단계는 2010년 완공을 위해 대구-부산의 노반공사를 올해 추진한다.

/연합뉴스



기아차 '카니발 리무진' 시판

버시 글래시 등을 장착한 '카니발 리무진' 가격은 3천220만원(자동차세 기준)이다.

기아자동차가 5일 11인승 그랜드 카니발 차체에 9인승 시트를 적용해 거주성을 개선한 '카니발 리무진(롱바디)' 시판에 들어갔다. 오토슬라이딩 도어, 프라이

(기아차 제공)

정몽구 회장 징역형...대내외 활동 '제동'

현대·기아차 '시름'

현대·기아차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연초부터 노조의 불법파업에 회사가 흔들거리더니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정몽구 회장마저 5일 징역형을 받아 정상적인 대내외 경영활동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침체에 빠진 내수와 해외 시장의 경쟁격화를 이겨내기 위해 뛰어들어도 모자랄 판에 회사 내부의 온갖 악재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는 것이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의 LA타임스는 전날 '현대차의 험로'란 제하의 경제섹션 특 기사를 통해 "이번 공판은 만성적인 노사분규, 원화 강세, 해외판매 부진 등 악재가 겹쳐 작년 35%의 이윤이 감소하며 고전하고 있는 현대차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현대차는 지난해 6년만에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이달에는 내수와 수출에서 판매량이 줄면서 국내 완성차 5개 업체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1월 미국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는 도요타와 혼다, 닛산 등 일본업체들이 성장세를 이어간데 반해 현대차는 8.2%나 판매대수가 줄었다.

러시아 수입차 시장에서는 지난해 2년간 지켜온 1위 자리를 내줘야 했

고 혼다, 도요타, 르노, GM은 인도와 중국시장에서 잇따라 막대한 투자계획과 마케팅 강화전략을 내놓으며 현대차를 압박하고 있다.

더욱이 작년 환차손으로 적자를 기록한 기아차 역시 올해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그룹 전체로 경영난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정몽구 회장이 이번 판결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면 현대차 그룹이 제시한 '273만5천대 판매, 42조원 매출'이라는 올해 목표는 물론 '2010년 글로벌 6위'의 목표도 달성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회사 안팎의 지적이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모두모이여행문화원	사무관리 여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06	062-236-1800
(유)광산서비스센터	[안내서비스] 광산 LG서비스센터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2/07	062-512-6212
기온신문정보광주지점	[채권추심] 관리 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08	062-226-7191
태정산업㈜	생산직 사원 모집공고 [보충역 가능]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2/08	062-953-2300
한국인포데이타㈜ 전남본부	광주 스키리조트 고객센터 채용공고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08	062-360-0503
해원반도체	Front 및 Final 테스터 생산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09	062-602-7800
나주이천식품	2007년 사무직 및 생산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09	061-337-8511
GM대우자동차판매	2007 정규직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3000~3200	02/09	062-942-9239
태봉	폐수처리장 관리-수질환경기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2/09	062-571-6470
서울검사	2007년 정규직 비회계사 직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2/09	062-369-0790
한글과 컴퓨터	2007년 정규직 컴퓨터 방문지도교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10	062-373-5221
(유)테크트렌시	전산인력 및 전산관리자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10	1644-0825
광천리인	LG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기사 및 보조기사 모집	고졸/경력무관	2600~2800	02/10	062-959-1411
윤선생영어교실(광주북구점)	[영어교육전문학교]상담/관리 선생님 채용공고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2/12	062-526-0565

(광주광역시 512-6210 제공)

화폐도안 제정 절차 개편

각계 전문가 참여폭 확대

한국은행은 최근 발행한 새 1만원·1천원권의 도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앞으로 화폐도안 제정 절차를 전면 개편해 도안 마련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도안의 변경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5일 한은에 따르면 이러한 방침은 곧 착수될 고액권 지폐도안 채택 작업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화폐도안 제정을 위해서는 한은 발원국장을 위 원장으로 하고 총 10명으로 구성된 화폐도안자문위원회에서 화폐도안을 심의, 채택해왔으며 최종 도안 확정때까지는 자문 위 참여인사의 명단이나 협의내용 자체를 철저히 비공개로 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공개 원칙을 완화, 도안마련 과정에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각계 전문가들을 두루 참여시키는 쪽으로 화폐도안 제정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설, 외화 세뱃돈 '불티'

외환銀, 5만세트 등 나 30만세트 추가

외환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선보인 외화 세뱃돈이 설 명절을 앞두고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이 지난 1일 출시한 외화 세뱃돈 세트가 판매 이틀 만에 5만세트 모두 동이 났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급히 30만세트를 추가 제작해 5일부터 한정 판매하기로 했다.

외화 세뱃돈 세트는 '행운의 2달러' 등 미 달러화와 유로화, 중국 위안화, 캐나다달러, 호주달러 등 세계 주요 3~5개 국가의 지폐로 구성돼 있으며 환율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큰 일본 엔화는 제외됐다.

외환은행은 원활한 외화 신권 조달을 위해 A세트의 통화를 호주달러 5달러 대신 캐나다달러 5달러로 변경했다. 판매가격은 종류별로 1만2천원, 3만원, 4만2천원 정도이며 환율 변동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다.

외화 세뱃돈 세트가 인기를 끄는 것은 소장 가치가 높은 데다 외국 통화에 대한 교육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위법 고발건수 사상 최대

공정위, 작년 47건...다단계 감시 강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다단계판매업체나 하도급법 위반업체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위반행위를 한 업체를 감찰에 고발한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사전처리현황을 집계한 결과 고발건수가 47건에 달해 전년(12건)의 무려 4배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에 달했다.

공정위의 고발건수는 2001년 23건에서 2002년 11건으로 줄었다가 2003년 18건, 2004년 22건으로 증가하는 등 그동안 2~3년 주기로 등락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고발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시정조치 불이행이 34건에 달해 가장 많았고, 불법 다단계판매 9건, 공동행위(담합) 3건, 하도급 1건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취업시장 속설의 '오해와 진실'

200대 1 경쟁률 6.7% 그쳐

초임 3천만원 이상 많지 않아

"어학연수 경험이 없어도 괜찮을지", "입사 경쟁률이 수백 대 일이라는데..."

구직자들은 작은 취업 소식 한토막에 일희일비하거나 학점, 영어성적, 어학연수 경험 등 소위 '스펙'이 부족할까 노심초사하게 마련이지만 실부른 걱정은 금물이다. 소수의 경향이 전반적 현상인 것처럼 과장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5일 인사취업전문기업 인크루트(www.incrut.com) 등을 통해 취업시장에 퍼져 구직자들을 '떨게 하는' 잘못된 상식을 진단해봤다.

인크루트가 작년 12월 상장기업 465개사를 대상으로 입사 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입사 경쟁률은 56.2대 1이었다. 입사경쟁률 분포도 '10대 1 이상-50대 1 미만' 기업이 34.0%로 가장 많았던 반면 '20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인 곳은 6.7%에 그쳤다.

역시 소수 대기업이나 유명 공기업의 사례가 널리 전해지면서 하나의 잣대처럼 굳어졌지만 대졸 초임으로 3천만원 이상 주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다. 연봉전문사이트 오픈셀러리에 등록된 연봉데이터 집계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합쳐 산출한 평균 대졸 초임은 1천800만원대였다. /연합뉴스